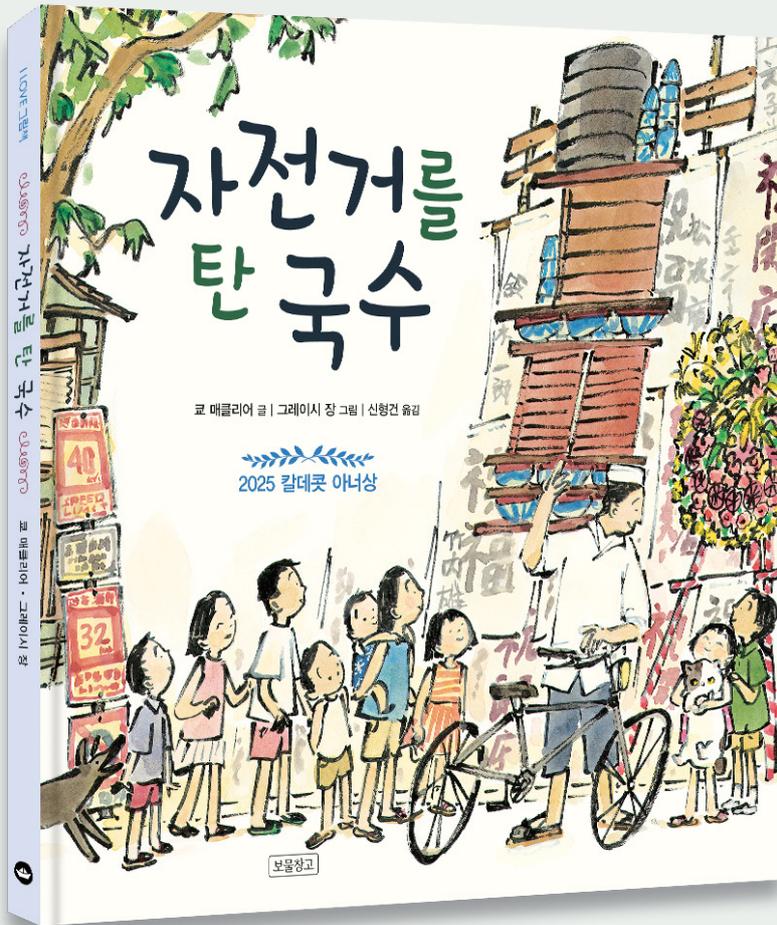


|유아, 초등 저학년|
〈자전거를 탄 국수〉

모니카 아르날도 지음 |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펴냄



2025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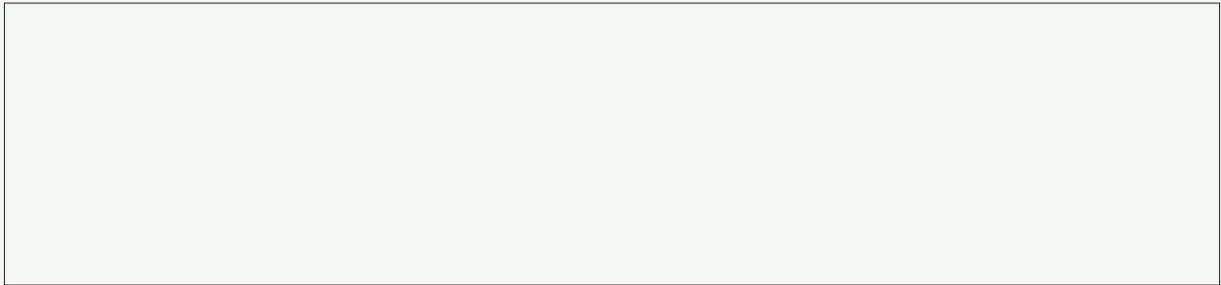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수 배달 방식을 소개하는 『자전거를 탄 국수』는 ‘2025 칼데콧 아너상’, ‘2025 살롱 줄로도 상 아너 북’을 연이어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림책이다.

『자전거를 탄 국수』속 아이들은 국수 배달원을 따라하며 쟁반과 그릇을 어깨에 이고 창고에 있던 자전거에 오른다. 그릇이 바닥에 얹어져도 즐겁기만 하다. 그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 배달원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매연 사이를 피해 능숙하게 페달을 밟아 바쁘고 활기찬 도심지로 향한다. 학교와 회사를 거쳐 아주 많은 국수를 배달한 그의 마지막 배달지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다. 모두 함께 국수를 먹고 피로를 푸는 모습에서 고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인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읽기 전 활동

1. 『자전거를 탄 국수』라는 제목을 읽고 떠오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2. 책의 날개에 적힌 글을 읽고 떠오르는 배달원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요.

3. 최근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나요? 어떤 음식이었는지, 배달원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요.

읽기 중 활동

1. 아이들이 기다리는 배달원은 누구였나요?



2. 책 속에 나오는 국수 배달원은 총 몇 명일까요? 입고 있는 옷이나 얼굴을 비교해 보며 세어 보아요.

3. 작가는 왜 배달원을 ‘예술가’, ‘건축가’, ‘역센 수다쟁이’, ‘날쌔 선수’, ‘꼭예사’라고 했을까요?

읽은 후 활동

1.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배달 음식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2.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구인가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3. 우리 집의 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아요.

